

'사회공헌 우수' 한빛원전, 보건복지부 장관상



한빛원자력본부는 27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선정된 사회공헌 우수 기업 및 기관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빛본부는 2020년부터 5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자매결연마를 활동,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 경로당 방문복지 프로그램 등의 사회공헌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한국문예위, 다문화 청소년에 예술치유키트 전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문예위)가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배준열)와 함께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예술치유키트 및 아동체육대회 운영을 위한 물품 기부 전달식을 최근 진행했다. (사진)

문예위 임직원들은 지난 9월부터 두 달여 직접 제작한 '에나씨(문화예술후원 캠페인 캐릭터)' 키링과 레인보우 키링 DIY 키트, 엽서 등을 광주·전남 다문화청소년 50가구 등에 기부했다. 2021년부터 3년간 진행한 예술치유키트 사회공헌은 지역사회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예술 경험 제공을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해 온 사업이다. /최유민 기자 rubi@kwangju.co.kr

소외계층에 30년 나눔·봉사 실천 의사 김만달 씨, 가톨릭 대상 수상



소외계층을 30여년간 돌본 의사 김만달(76·세례명 골롬반노·사진)씨가 제 41회 가톨릭대상(사랑·생명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상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와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이 수여하는 상으로 김 씨는 노숙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30여년간 돌보는 등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공을 인정받았다. 여수시에서 내과 의사로 활동하는 김 씨는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했던 1986년 우연히 행려 환자와 만난 것을 계기로 노숙인 시설 '엘마우스'를 결성하고 주택을 매입해 노숙인들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그는 입소자들이 퇴소할 때까지 30여년간 돌봤고 이후에는 시설을 작은형제회에 기부해 냈다. 김 씨는 또 소외 계층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진료 봉사를 하고 독거노인을 위해 복지시설을 익명으로 지원했다. 10명이 넘는 무연고 선종자의 장례를 치르고 천주교 공원묘지에 안장하는 등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왔다. /연합뉴스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위기 청소년 소진예방 활동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원장양미란) 상담복지센터가 지난 26일 재난, 사망, 간접 외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긴급대응체계 심리지원단과 청소년전화 1388 전화상담원을 대상으로 소진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과 전남지역 22개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이 자살, 학교폭력 등 극단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할 경우 신속하게 개입, 심리적인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전화1388과 전남지역 심리지원단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해외 거주 지스트 졸업생들, 학교 발전기금 기탁



해외에 거주하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총장임기철) 졸업생들이 학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사진)

기탁식은 임기철 총장, 김재관 대외협력처장, 박진호 졸업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기금에 참여한 졸업생들은 강군목(현 Northwestern University 박사후연구원)씨, 박진호(현 Stanford University 박사후연구원)씨, 윤석경(현 University of Chicago 대학원생)씨, 이연재(현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 UC Berkeley 박사후연구원)씨, 한수영(현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박사후연구원)씨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철도 목표역 조예진 역무원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목표역(역장 김성모) 역무원 조예진(사진)씨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목표역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조 씨는 목표역을 이용하는 고객의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해 곳곳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보완해왔으며, 사고발생 대비 업무를 담당하고 사무실 내 냉난방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고객과 직원 안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 수행해왔다. 그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와 협업해 목표역역사 내 안전 문화 홍보를 진행하고, 여름철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도 추진하는 등 고객의 안전의식 제고와 산업안전 예방에 노력을 기울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TV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0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결혼하자 맹공아(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친절한 선주씨(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0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인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30 일일드라마 스캔들(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5 사랑의 가족(재)	10 수목드라마 페이스 미(재)	15 건강의 재구성 썰록(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20 동네 한 바퀴(재)	00 12 MBC 뉴스 25 지금 거신 전화는(재)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5 캐리와 친구들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별빛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5 생생정보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방과 후 초능력 4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출동! 유후구조대(재)	55 기본 좋은 날	00 좋은아침 스페셜
3	10 우리 집 금융아지(재)	00 TV 유치원(재) 30 누가누가 잘하나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누가누가 잘하나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스페셜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위시켓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40 2TV 생생정보	05 남도 탐구생활	2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스캔들	05 생방송 영공복권 720+ 10 친절한 선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15 시장의 폭력 50 SBS 8 뉴스
8	30 결혼하자 맹공아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수목드라마 페이스 미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와 진짜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0 아이 러브 스포츠 25 동물은 훌륭하다(재)	40 지금 거신 전화는(재)	50 테마스페셜
12	00 KBS 중계식	4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심상! 고향별곡(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9:20 고향만국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건축탐구 - 집(재)	19:50 PD로그
07:0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15 무지개 강아지 달린의 모험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떠나고 싶다면 말레이시아
07:3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힐링이 필요해? 카메론하이랜드-프렌터인
07:45 하프와 친구들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1:35 한국기행
08:00 당동당 유치원	15:55 블루스	<매운맛 좀 볼까 4부 우리 동네 '밭도둑'>
08:20 최고다! 호기심 딱지	16:10 당동당 유치원(재)	21:55 왔다! 내 손주
08:50 도래미 프렌즈	16:30 페파 피그	22:45 다큐멘터리K
09:05 골짜기와 처음 수학	16:40 마사와 곰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20 탐골스타 개칭(재)	16:55 하프와 친구들(재)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09:4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17:10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24:40 EBS 비즈니스 리뷰
10:30 한국기행(재)	17:40 우당탕 마를 스페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8일(음 10월 28일 丙申) ☎ 010-9790-8237
子	36년생 함께하면서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 48년생 핵심을 적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60년생 상대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72년생 기정 사실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칙대로 정확히 해야만 후회가 없다. 84년생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96년생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리라. 행운의 숫자 : 11, 70
丑	37년생 부주의의 한다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49년생 명예나 영달이 따를 수도 있는 행운의 날이다. 61년생 실수한다면 커다란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73년생 종합적으로 실행해야만 손조로운 양상으로 이끈다. 85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상당한 곤혹스럽겠다. 97년생 마무리를 잘못하면 헛수고할 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45, 68
寅	38년생 뜻밖의 인연이라면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50년생 정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62년생 이면에 가려져 있는 주변에 관심을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74년생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옳다. 86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해할 수 있다. 98년생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0, 92
卯	39년생 지체 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51년생 미련을 버렸을 때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63년생 판국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리라. 75년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실행하라. 87년생 활력소가 되어 주기에 충분한 일이 펼쳐질 것이다. 99년생 기쁨이 조성되면서 여러 가지가 손조로운을 더한다. 행운의 숫자 : 46, 94
辰	40년생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다. 52년생 직접 나서는 적극성이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 64년생 조용한 호수에 파문을 던지는 이가 보인다. 76년생 안정성에 관한 평가 작업을 해둬야 할 시기이다. 88년생 측면에 따라 연쇄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00년생 견뎌 낼 수만 있다면 대박이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72
巳	41년생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취약점이 보인다. 53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65년생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가까스로 취하는 형세이다. 77년생 여유를 갖고 자신의 뒤를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89년생 순식간에 상하 간의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으니 방심은 금물이다. 01년생 바쁘지만 하고 싶다는 바하겠다. 행운의 숫자 : 34, 97
午	42년생 무리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54년생 가닥부터 잡아 나가는 것이 실용적이다. 66년생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 78년생 평소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니 잘 살피라. 90년생 새로운 것들을 접하다 보면 전망이 밝아진다. 02년생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7, 71
未	43년생 앞선 데 맞춘 격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55년생 시련을 끌어왔던 바가 완성되어 가는 동시에 와 있느니라. 67년생 여기저기에 위험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으니 잘 살피고 다니는 것이 무난하리라. 79년생 공정성과 투명성만이 신뢰를 얻으리라. 91년생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03년생 드디어 분석을 드러내리라. 행운의 숫자 : 26, 58
申	44년생 겸손함과 검소함 속에서 복이 피어날 수 있다. 56년생 무의식중에 행한 언행에 의해서 외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다. 68년생 용기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실행하라. 80년생 예측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92년생 겉은 화려하나 실속은 별로 없을 것이다. 04년생 확실하게 이득이 될 만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8, 51
酉	45년생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릴 수 있으니 차분해야 할 것이다. 57년생 친화력이 곧 기반의 요체가 될 것이니 먼저 손을 내밀어라. 69년생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81년생 잠만 활동한다면 상당한 수익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 93년생 전환되면서 상당한 수익을 부른다. 05년생 역발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59
戌	46년생 서로 진행 방향이 상반되니 인연이 박하도다. 58년생 약진하는 길목에 들어서고 있느니라. 70년생 시초에 바로 잡아 궁극까지 수월할 것이다. 82년생 절실한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씩 해결되리라. 94년생 공허한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할 때이니라. 06년생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대국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33, 86
亥	35년생 지금 이대로 조조해 나간다면 언변에 가까운 판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47년생 희망찬 기운이 계속되는 운로므로 변함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만 한다. 59년생 필연적으로 격돌할 수밖에 없는 마당이다. 71년생 객관적인 실상에 주목하여야 한다. 83년생 막힘없이 술술 풀리리라. 95년생 독창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41, 56